

'26.7월 취업자수는 10.8만명 증가해 4개월만에 두자릿수 증가

- 서비스업 증가세 지속, 제조업·건설업·농림어업 감소폭 축소
- 청년 쉬었음은 6개월 연속 감소했으나, 고용률 하락 등 어려움 지속
- 취약부문·부진업종 고용상황 개선에 총력 + 경제전반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

① '26.7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3.3%로 전년대비 $\Delta 0.1\%p$ 하락했으며, 15~64세 고용률은 70.3%로 전년대비 $+0.1\%p$ 상승했다. 경제활동참가율은 65.0%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며, 실업률은 2.6%로 전년대비 $+0.2\%p$ 상승했다.

* 7월 고용지표('25→'26년, %): <고용률> 63.4 → **63.3** <경활률> 65.0 → **65.0** <실업률> 2.4 → **2.6**

○ 연령별로는 40대(80.7%, $+0.7\%p$)·50대(78.7%, $+1.1\%p$) 고용률이 상승했고, 30대(81.0%, 0.0%p)는 보합, 60세 이상(47.7%, $\Delta 0.1\%p$)은 하락했다.

- 청년 고용률(44.2%, $\Delta 1.6\%p$)은 하락세를 지속했으나, 쉬었음 인구는 6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다.

* 청년 쉬었음(만명): ('25.7)43.6 ('26.1)46.9 (2)48.5 (3)40.2 (4)39.1 (5)38.4 (6)35.9 (7)**36.7**
↳ <전년비, 만명> ('25.7) $\Delta 0.7$ ('26.1) 3.5 (2) $\Delta 2.0$ (3) $\Delta 5.3$ (4) $\Delta 2.4$ (5) $\Delta 1.2$ (6) $\Delta 4.9$ (7) $\Delta 6.9$

○ 7월 기준으로 15세 이상 고용률은 역대 2위이며, 경활률과 15~64세 고용률은 역대 1위를 기록했다.

②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10.8만명 증가했으며, 계절조정 전월비로는 5.3만명 증가했다.

* 취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: ('25.7)17.1 (12)16.8 ('26.2)23.4 (3)20.6 (4)7.4 (5) $\Delta 4.0$ (6)6.3 (7)**10.8**

○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경우, 전문·과학·기술 서비스업($\Delta 6.0 \rightarrow \Delta 4.4$ 만명) 감소폭이 축소되고, 보건복지업(21.4→17.3만명), 공공행정(0.2→4.6만명), 금융보험업(1.5→3.4만명) 등이 증가하면서 30만명 내외 증가세가 지속되었다.

* 서비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4)23.9 ('25)49.2 ('26.1/4)31.5 (2/4)25.4 (6)30.7 (7)**29.5**

- 제조업($\Delta 9.7 \rightarrow \Delta 6.8$ 만명)은 수출호조 등으로, 건설업($\Delta 6.7 \rightarrow \Delta 5.7$ 만명)은 건설기성 개선 등으로 감소폭이 축소되었다.
 - 지위별로는 상용직($1.6 \rightarrow 7.1$ 만명)은 증가폭 확대, 임시직($\Delta 5.1 \rightarrow \Delta 4.0$ 만명)·일용직($\Delta 4.5 \rightarrow \Delta 4.1$ 만명)은 감소폭이 축소되었다.
- ③ 7월 취업자수는 2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($6.3 \rightarrow 10.8$ 만명)되며 4개월만에 두자릿수 증가했다.
- 다만 청년, 제조·건설업 등에서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지역 긴장 등 불확실성 지속, 폭염 등 기상여건 악화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.
- ④ 정부는 취약부문·부진업종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최근 취업자수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.
- 우선, 청년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중인 ‘청년 일자리 회복방안’을 이르면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.
 - 아울러, 제조업, 건설업 등 고용이 부진한 업종에 대해서는 일자리전담반 통해 산업활력 제고, 인력양성 및 일자리·창업 확대 등 대응과제를 발굴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.
 -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과 투자성과의 쏠 지역·산업 확산 등을 통해 경제전반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 노력도 병행한다.

재정경제부 <총괄>	민생경제국 인력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태웅 (044-215-2840)
		담당자	사무관	박종운 (044-215-2842)
고용노동부 <공동>	고용정책실 미래고용분석과	책임자	과 장	조원식 (044-202-7260)
		담당자	사무관	김주봉 (044-202-7256)

1. '26.7월 고용동향 특징

□ 고용률 63.3%(월간 역대 2위), 경제활동참가율 65.0%(월간 역대 1위), 실업률 2.6%, 취업자수 10.8만명 증가

○ 15세 이상 고용률 63.3%로 $\Delta 0.1\%p$ 하락(역대 2위, '82.7월~), 15~64세 고용률 70.3%로 $+0.1\%p$ 상승(역대 1위, '89.1월~)

* 고용률(15세+, %): ('25.3/4)63.5 (4/4)62.7 ('26.1/4)61.8 (2/4)63.2 [(6)63.4] **(7)63.3**
고용률(15-64세, %): ('25.3/4)70.2 (4/4)70.0 ('26.1/4)69.3 (2/4)70.1 [(6)70.2] **(7)70.3**

○ 경제활동참가율 65.0%로 보합(역대 1위, '99.6월~)

* 경합률(15세+, %): ('25.3/4)64.9 (4/4)64.6 ('26.1/4)64.1 (2/4)65.1 [(6)65.2] **(7)65.0**

○ 실업률은 2.6%로 $0.2\%p$ 상승(^{7월 기준}역대 최저 3위, '99.6월~)

* 실업률(15세+, %): ('25.3/4)2.2 (4/4)2.9 ('26.1/4)3.5 (2/4)2.9 [(6)2.8] **(7)2.6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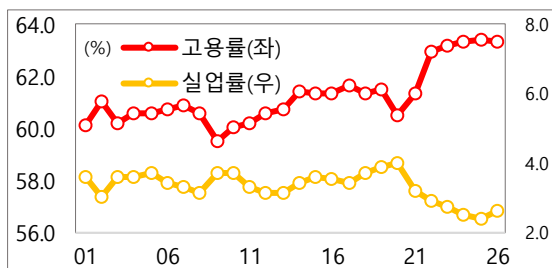
○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10.8만명 증가

* 취업자 증감(전년대비, 만명): ('25.3/4)21.6 (4/4)19.5 ('26.1/4)18.3 (2/4)3.2 [(6)6.3] **(7)10.8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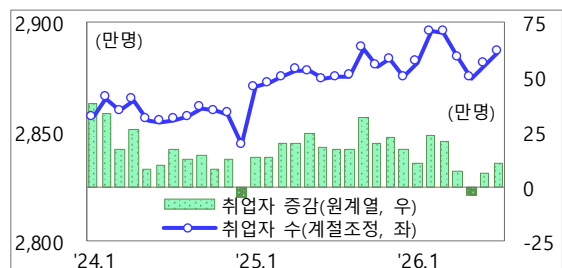
-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5.3만명 증가

* 계절조정 취업자 증감(전기비, 만명): ('25.3/4) 2.8 (4/4) $\Delta 0.2$ ('26.1/4)11.7 (2/4) $\Delta 11.2$ [(6)6.6] **(7)5.3**

15세 이상 고용률·실업률(원계열, 매년 7월)



전체 취업자수 및 증감(원계열, 계절조정, 전년대비)



□ (산업) 서비스업 증가세 지속, 제조업·건설업 감소폭 축소

○ (서비스) 전문서비스업, 보건복지·공공행정 등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(30.7 → 29.5만명)

* 서비스업 취업자전년대비, 만명: ('25.3/4)51.1 (4/4)46.7 ('26.1/4)31.5 (2/4)25.4 [(6)30.7] **(7)29.5**

* 공공복지 외 서비스전년대비, 만명: ('25.3/4)22.0 (4/4)20.9 ('26.1/4)10.8 (2/4)2.9 [(6)9.1] **(7)7.6**

- 정보통신(4.7→2.2만)·금융보험업(1.5→3.4만) 증가, 전문과학(△6.0→△4.4만)은 감소폭 축소(계절조정 전월비는 3개월 연속 증가)
 - * 정보통신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△0.4 (4/4)0.9 ('26.1/4)△2.0 (2/4)3.0 [(6)4.7] **(7)2.2**
 금융보험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3.4 (4/4)3.7 ('26.1/4)1.6 (2/4)0.6 [(6)1.5] **(7)3.4**
 전문과학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5.0 (4/4)△1.9 ('26.1/4)△8.8 (2/4)△8.8 [(6)△6.0] **(7)△4.4**
 ↳계절조정 취업자(전월비, 만명): ('26.1)△3.2 (2)△1.6 (3)2.9 (4)△0.2 (5)2.2 (6)2.3 **(7)0.4**
- 보건복지(21.4→17.3만명)는 전년 기저('25.6월21.6→7월26.3만명) 등으로 조정되었으나, 공공행정(0.2→4.6만명)은 증가폭 확대*
 - * 보건복지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29.0 (4/4)26.0 ('26.1/4)25.6 (2/4)22.9 [(6)21.4] **(7)17.3**
 공공행정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0.1 (4/4)△0.2 ('26.1/4)△4.9 (2/4)△0.4 [(6)0.2] **(7)4.6**
 - ※ 국세·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(7.8일~, 5,500명) 등 청년뉴딜 일경험 프로그램 효과 포함
- 도소매(△4.4→△0.5만명) 감소폭은 축소되었으나, 숙박음식(1.0→0.2만명) 증가폭 축소, 운수창고(4.8→△0.5만명) 감소 전환
 - * 도소매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1.3 (4/4)3.4 ('26.1/4)0.9 (2/4)△4.4 [(6)△4.4] **(7)△0.5**
 숙박음식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△1.5 (4/4)△0.7 ('26.1/4)△1.5 (2/4)0.0 [(6)1.0] **(7)0.2**
 운수창고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1.4 (4/4)4.2 ('26.1/4)7.6 (2/4)3.4 [(6)4.8] **(7)△0.5**
- (제조) 자동차·기계 등 주력품목 수출호조, 원자재가격 부담 완화 기대 등으로 감소폭 축소(△9.7→△6.8만명)
 - * 제조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△6.7 (4/4)△5.2 ('26.1/4)△2.7 (2/4)△9.7 [(6)△9.7] **(7)△6.8**
 - * 일평균 수출 증가율(전년비, %): ('25)4.3 ('26.1)14.0 (2)49.8 (3)43.9 (4)47.7 (5)60.5 (6)59.4 **(7)69.6**
 ↳주요품목 증가율(전년비, % 6→7월: (반도체)199.5→178.8 (자동차)5.8→7.0 (기계)7.5→5.9
 - * 원자재구입가격전망BSI(장기평균=100): ('26.2)125 (3)125 (4)138 (5)149 (6)141 (7)136 (8)128
- (건설) 건설기성 개선 등으로 감소폭 축소(△6.7→△5.7만명)
 - * 건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△10.2 (4/4)△10.6 ('26.1/4)△2.5 (2/4)△3.9 [(6)△6.7] **(7)△5.7**
 - * 건설기성(전기비, %): ('25.3/4)△0.8 (4/4)△4.1 ('26.1/4)0.5 (2/4)0.4 [(4)△2.8 (5)3.7 (6)4.1]
- (농림)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 등으로 감소세 지속(△9.5→△8.0만명)
 - * 농림어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△13.7 (4/4)△12.4 ('26.1/4)△8.5 (2/4)△10.2 [(6)△9.5] **(7)△8.0**

□ (지위·연령) 상용직 비중 57.6%(보합), 40·50대 고용률 상승

- (지위) 상용직 증가폭 확대(1.6→7.1만명) 되었으나 취업자수도 증가해 상용직 비중 보합, 임시(△4.0만명)·일용직(△4.1만명)은 감소
 - * 상용직 비중(7월, %): ('00)29.8 ('05)34.1 ('10)41.6 ('15)48.0 ('20)53.6 ('25)57.6 **(26)57.6**
 임금근로자 증감(전년비, 만명, 6월→7월): <상용>1.6→7.1 <임시>△5.1→△4.0 <일용>△4.5→△4.1
- 비임금근로자(11.9만명)는 고용有(7.5만명)·無(7.5만명) 자영업자 증가, 무급가족종사자(△3.2만명)는 감소폭 확대
 - * 비임금 증감(전년비, 만명, 6→7월): <고용有>9.5→7.5 <고용無>7.2→7.5 <무급>△2.3→△3.2

○ (연령) 40·50대 고용률 상승, 30대 보합, 청년층·60대 이상은 하락

- 청년층 고용률(44.2%, △1.6%p) 하락, 실업률(6.8%, +1.3%p) 상승

(% , %p)		'25년	4/4	'26.1/4	'26.2/4	5월	6월	7월
고용률	청년	45.0 (△1.1)	44.4 (△0.9)	43.5 (△1.0)	43.8 (△1.9)	43.8 (△2.4)	43.9 (△1.7)	44.2 (△1.6)
	20初	43.6 (△1.5)	42.6 (△1.3)	40.5 (△2.2)	41.3 (△3.2)	41.6 (△4.2)	41.9 (△2.8)	42.6 (△3.2)
	20後	71.8 (△0.7)	71.5 (△0.7)	70.6 (△0.6)	71.5 (△1.0)	71.4 (△1.3)	71.6 (△0.8)	71.4 (△0.6)
실업률	청년	6.1 (+0.2)	5.7 (+0.1)	7.4 (+0.6)	7.1 (+0.4)	7.2 (+0.6)	7.0 (+0.9)	6.8 (+1.3)
	20初	6.6 (+0.3)	5.4 (△0.4)	8.2 (+0.1)	7.7 (+0.2)	7.2 (△0.5)	6.8 (△0.1)	7.1 (+1.3)
	20後	5.9 (+0.3)	5.8 (+0.2)	6.9 (+0.6)	6.8 (+0.5)	7.1 (+0.8)	7.0 (+1.3)	6.7 (+1.3)

- 청년층 쉬었음(36.7만명, △6.9만명)은 6개월 연속 전년비 감소

* 청년 쉬었음(만명): ('25.7)43.6 (12)41.1 ('26.1)46.9 (2)48.5 (3)40.2 (4)39.1 (5)38.4 (6)35.9 (7)36.7

◇ 일자리 어려움 겪는 '실업자+취업준비+쉬었음' 비중(7월 13.0%, 101.2만명)은 전년비 감소(△0.4%p, △5.3만명), 예년('21~'25년 평균 13.8%)보다 낮은 수준

청년층 인구 중 쉬었음·취업준비·실업자 비중(7월 기준, %)

(7월 기준, 만명, %)		최근 5년 평균 ('21~'25)	'21	'22	'23	'24	'25	'26
합계(A+B+C)	수(인구내비중)	115.2 (13.8)	131.1 (15.0)	118.8 (13.9)	110.8 (13.2)	108.6 (13.3)	106.5 (13.4)	101.2 (13.0)
실업자(A)	수(인구내비중)	25.8 (3.1)	30.8 (3.5)	29.5 (3.5)	25.2 (3.0)	22.3 (2.7)	21.0 (2.6)	25.1 (3.2)
취준생(B)	수(인구내비중)	48.6 (5.8)	60.4 (6.9)	53.2 (6.2)	45.4 (5.4)	42.0 (5.2)	41.9 (5.3)	39.4 (5.1)
쉬었음(C)	수(인구내비중)	40.8 (4.9)	39.9 (4.6)	36.1 (4.2)	40.2 (4.8)	44.3 (5.4)	43.6 (5.5)	36.7 (4.7)

※ 청년층은 쉬었음 사유(노동시장적 사유, 경제활동 준비, 일시적 휴식 등), 구직의사 등 이질적 특성 보유

* "쉬었음"은 비경활 활동상태 중 다른 명확한 유형(육아가사, 취업준비, 통학 등)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사유를 모두 포괄하여 이질성이 높은 특성

* 20~30대 쉬었음 사유('25.8월 비경활부가조사, %):
(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움)31.0 (건강)20.7 (다음일 준비)19.1 (일자리 없음)9.3

- 30대는 인구와 취업자수가 함께 증가하며 고용률 보합,
40대는 인구감소 비해 취업자수 소폭 감소하며 고용률 상승

* 30대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5.3/4)0.6 (4/4)0.2 ('26.1/4)0.5 (2/4)0.1 [(6)0.0] (7)0.0 **[81.0]**

40대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5.3/4)0.7 (4/4)1.0 ('26.1/4)1.2 (2/4)0.8 [(6)0.8] (7)0.7 **[80.7]**

- 50대는 인구는 감소했으나 취업자수는 증가하며 고용률 상승,
60세 이상은 고령화 등으로 인구 큰 폭 증가하며 고용률 하락

* 50대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5.3/4) 0.1 (4/4) 0.3 ('26.1/4)0.8 (2/4) 0.7 [(6) 0.7] (7)1.1 **[78.7]**

60세+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5.3/4) 0.9 (4/4) 0.5 ('26.1/4)0.1 (2/4)△0.3 [(6)△0.1] (7)△0.1 **[47.7]**

2. 평가 및 대응

□ '26.7월 취업자수는 4개월만에 두자릿수 증가(^{6월}6.3→^{7월}10.8만명), 다만 청년, 제조업·건설업 취업자수 감소 지속 등 부문별 어려움도 상존

- 서비스업*은 전문서비스, 보건복지, 공공행정 등 중심으로 증가하며 30만명대 내외 증가세 지속

* 서비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51.1 (4/4)46.7 ('26.1/4)31.5 (2/4)25.4 [(6)30.7] **(7)29.5**

- 보건복지는 전년 기저(^{25.6월}21.6→^{7월}26.3만명) 등으로 조정되었으나, 공공행정은 증가하면서 공공·복지 취업자는 20만명대 증가세 지속

* 공공복지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29.1 (4/4)25.9 ('26.1/4)20.6 (2/4)22.4 [(6)21.6] **(7)21.9**

- 도소매 감소폭은 축소되었으나, 숙박음식 증가폭 축소, 운수창고는 감소 전환

- 제조업은 자동차·기계 수출 증가세 지속 등으로 감소폭 축소, 건설업도 건설기성 개선 등으로 감소폭 축소

- 청년은 제조업 등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고용률 하락세 지속, 다만 쉬었음은 6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

* 청년 쉬었음(만명): ('25.7)43.6 ('26.1)46.9 (2)48.5 (3)40.2 (4)39.1 (5)38.4 (6)35.9 **(7)36.7**

↳ <전년비, 만명> ('25.7)△0.7 ('26.1) 3.5 (2)△2.0 (3)△5.3 (4)△2.4 (5)△1.2 (6)△4.9 **(7)△6.9**

- 8월은 중동지역 긴장 불확실성, 폭염 등 기상악화 영향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 우려

□ '청년일자리 회복방안' 등 통해 취약부문·부진업종 고용상황 개선 노력 + 3대 메가프로젝트 조속한 추진 등 통한 일자리 창출력 강화

- 첨단산업·청년선호분야 인력 20만명^{~30년} 양성, 민간·공공일자리, 창업 등 30만개 창출^{~30년} 등 '청년일자리 회복방안' 조속히 마련

- 제조·건설업 등 고용부진업종은 일자리전담반 등 통해 산업 활력 제고, 인력양성 및 일자리·창업 확대 등 대응과제 발굴

-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과 투자성과의 쏠 지역·산업 확산 등을 통한 경제전반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 노력도 병행